

東武의 人間論에서 접근한 四象構造 分析

강태곤 · 박성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The Analysis on Lee Je-Ma's Sasang Structure Which Focused on Human

Kang Tae-Gon,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Objectives

This Study is to comprehend the Sasang structure created by Lee Je-Ma.

2. Methods

We analyzed 『Dongyisusebowon(東醫壽世保元)』 & 『Gyukchigo(格致藥)』 which contain the contents of 'Heaven-Human-Nature-Order(天人性命)' and 'Affairs-Mind-Body-Objects(事心身物)'.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The structure of Sasang is divided into two, which are 'Talent(才能의 部分)-Action(行爲의 部分)' and 'Self examination(正己의 部分)-Perception of mankind(知人的 部分)'.
- 2) 'Talent-Action' is the ontological structure of the Sasang. 'Self examination-Perception of mankind' is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of the Sasang.
- 3) The ontological structure of Sasang is essential concept which is explaining the existence of mankind. An administrative structure of Sasang is operative concept which makes human as oneself.
- 4) It is necessary to have the insight to organize these four parts into the one organic whole if one has to comprehend the profound meaning of Sasang.
- 5) Four parts of Sasang structure could be matched as 'Heaven(天)-Affairs(事), Human(人)-Objects(物)', 'Nature(性)-Mind(心), Order(命)-Body(身)'.

Key Words : Sasang Structure, Heaven-Human-Nature-Order, Affairs-Mind-Body-Objects

I. 緒 論

東武에 있어 四象은 그의 哲學과 醫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思考의 큰 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東武의 思考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四象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東醫壽世保元』에선 天人性命의 구조로 四象이 설명되고, 『格致藥』 「儒略」에선 事心身物이 四象構造의 기본이 된다.

李¹⁾는 天人性命을 인간의 身體의 구조와 心性情의 구조가 복합된 의미로 파악하였다. 즉 四象構造의 분석은 인간을 이해함에 중요한 부분이

• 접수일 2007년 07월 02일; 승인일 2007년 07월 27일
• 교신저자 : 박성식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31-710-3723 Fax : +82-31-710-3780
E-mail : parkss@dongguk.edu

1) 이을호, 李東武 四象說 論. 한국사상논문선집. 2001:404-407.

기에 東武의 四象에 기반한 人間論 연구에서 많은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東武의 人間론에 있어선 ‘性命論的 人間관’-‘知行論的 人間관’-‘體質論的 人間관’으로의 구분²⁾, ‘存在論的 人間’-‘行爲論的 人間’으로의 구분(人性·人形의 人間관³⁾, ‘存在的 人間’-‘當爲的 人間’의 구분⁴⁾ 등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연구 방법에 있어 四象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들(天人性命)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선 기존의 연구 중 天人性命과 事心身物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하겠다.

宋⁵⁾은 天人을 人間 外在의 요소(先天的/天稟的, 時間的/構造的)로 性命은 人間 內在의 요소(後天的/自律的, 空間的/機能的)로 보았으며, 李⁶⁾는 四象을 事物(天人)의 패러다임과 心身(性命)의 패러다임의 결합을 정의하고, 事物의 패러다임을 天稟之已定(統體的 兩儀/非我)의 의미로 心身の 패러다임은 天稟之未定(個別的 兩儀/我)의 의미로 보았다. 또한 金⁷⁾은 天人을 靜的인 현상으로 性命을 動的인 현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四象構造를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함에 언제나 天人과 性命의 조합으로 나누어 분석했으며 또한 天人과 性命에 부여한 의미에 있어서도 一脈相通한 정의를 내리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그러나 四象을 天人과 性命의 조합으로만 분석함으로 인하여, 人間の 存在的 부분에선 先天的 요소로 규정된 天人이 性命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되며 人間の 실용적 삶에 있어선 이미 정해진 天人보다 가변적인 性命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시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天人은 언제나 先天的으로 움직이지 않는 불변의 요소이며, 性命은 언제나 後天的으로 변할 수 있는 가변적 요소인가?”, “東武의 四象構造는 先-後天的 기준에 의해 四象의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 달라지는가?”란 두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東武는 天人(先天的-已定)에 속하는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의 性과 情 또한 中과 和를 통하여 후천적으로 조절해야 함을 말하며 후천적 表裏病이 性情의 부조화로 유발됨을 제시한다. 또한 性命(後天的-未定)에 속하는 額臆臍腹과 頭肩腰臀의 慾心(邪心과 怠心)에서 보이는 경향성을 선천적 체질과 연관을 시키기도 한다. 더군다나 東武는 四象을 兩儀的으로 나누어 설명함에 둘의 상대적 비중을 달리하여 설명함이 없다.

따라서 天人과 性命으로만 나누어 四象構造를 분석하는 것만으론 東武의 四象構造를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著者는 天人性命과 事心身物을 바탕으로 하는 四象構造 있어서 天人(事物)-性命(心身)의 일반적 분석을 재해석하고 天性(事心)-人命(物身)으로의 분석을 새롭게 시도하여 東武의 四象構造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II. 本 論

1. 天人-性命의 대칭적 構造로 분석한 四象

東武는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이 天機와 人事에서 ‘觀於天’, ‘立於人’ 한다고 하였다. 耳目鼻口가 觀於天함은 天機를 聽視嗅味 하는 것이며, 肺脾肝腎이 立於人함은 人事를 達合立定하는 것이다. 天機를 聽視嗅味하는 것은 天機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미이며 人事를 達合立定하는 것은 人事에서의 적극적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에 크게 무리는 없다⁸⁾.

『東醫壽世保元』「擴充論」에서는 耳目鼻口는 天

2) 송일병. 李濟馬의 儒學의 人間觀과 醫學精神.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1):1-9.
 3) 송일병. Human genome 시대에 부응하는 四象體質醫學의 역할과 치료정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2):1-8.
 4) 박은경. 東武 李濟馬의 人間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3:46-55.
 5) 송일병. 東武公의 形象觀과 四象醫學의 形象醫學精神.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7-9.
 6) 이의주, 송일병. 李濟馬의 四象哲學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15-12.
 7) 김정호, 송정모. 四象醫學 形象觀에 대한 事心身物의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295-310.

8) 『東醫壽世保元』「四端論」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

機를 察하고 肺脾肝腎은 人事를 行한다는 말로 풀어 설명하고 있다. 耳目鼻口와 天機를 설명함에 사용된 ‘察’은 『格致彙』에서도 자주 쓰이는 용례⁹⁾로 ‘知’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頤臆臍腹과 頭肩腰臀은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의 知行을 바탕으로 性과 命에서 ‘行其知’, ‘行其行’ 한다¹⁰⁾. 性은 慧覺으로 받으며 慧覺에선 仁義禮智, 忠孝友悌가 나온다. 즉 慧覺은 天機를 바탕으로 行함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命은 資業으로 받으며 資業에선 土農工商, 田宅邦國이 나온다. 즉 資業은 人事를 바탕으로 行함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耳目鼻口와 肺脾肝身을 知와 行으로 나눈다면 頤臆臍腹과 頭肩腰臀도 知와 行으로 나눌 수 있으며, 頤臆臍腹-頭肩腰臀은 耳目鼻口-肺脾肝腎에 비해 行的인 개념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선 知의 작용을 ‘舒卷’으로, 行的 작용을 ‘進退’로 표현한다¹¹⁾. 知(舒卷)가 快와 覺으로, 行(進退)이 動과 止로 나뉘어 곧 兩儀에서 四象으로 분화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분화는 行爲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天人과 性命의 관계는 ‘行’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天人과 性命의 兩儀 構造가 ‘變靜動化’함에 곧 天人性命의 四象구조를 이룬다.

인간이란 하늘의 법칙(天機)을 知함과, 사람들 사이의 상호관계(人事) 속에서 行함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인간이 추구하여야 할 궁극적 목표는 바로 이러한 知와 行的 올바른 조화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조화와 질서의 추구가 인간 행위의 기본적인 지향점으로 이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東武는 天機와 人事에 놓여진 인간에게서 필연적으로 발견되는 知와 行을 인간을 이해하는 기본 단위 즉 天人의 구조로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知와 行이 다시 變靜動化된 것을 性命 구조로 보아, 天人구조와 性命구조가 합쳐진 것을 四象으로 보았다.

天人의 요소는 누구나 聖인이 될 수 있는 才能의 요건이라면, 性命의 요소는 天機와 人事를 집합에 있어 당위적으로 따라오는 삶 行爲의 개념이다.

즉 인간에 才能의 부분이 있다면, 그 才能을 바탕으로 당연히 행위가 발현된다. 才能은 先天的이며 시간상의 過去라면, 行爲는 後天的이며 未來일 것이다. 이러한 存在와 行爲가 유기적 관계를 이루는 인간 그 자체는 바로 現在의 개념일 것이다.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의 조합을 兩儀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를 묶는다면 하나의 才能의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頤臆臍腹과 頭肩腰臀의 조합을 兩儀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를 다시 묶는다면 하나의 行爲의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才能의 요소와, 行爲의 요소의 조합자체가 큰 묶음의 兩儀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큰 묶음은 그 속에 四象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才能과 行爲(當爲)는 인간의 파악함에 가장 근원적인 부분으로 才能과 行爲의 유기적 결합이 곧 인간의 本體的 四象構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9) 『格致彙』「反誠箴(2.乾箴)」“必察其時 權之所在 必察其權 位之所在 必察其位 利之所在 必察其利.” 「反誠箴(3.兌箴)」“是故 格物致知 都在於察乎詭詐 誠意正心 都在於察乎詭詐 修身齊家 都在於察乎詭詐 治國平天下 都在於察乎詭詐 而怨天尤人 必在於不察詭詐 反道敗德 必在於不察詭詐也 曰大哉子之言也 大而至哉子之爲也.”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察’의 용례가 보이며 해석에 있어서도 ‘察’은 단순한 관찰의 의미가 아니라 파악하고 알아 가는 ‘知’의 의미가 강하다.

10) 『東醫壽世保元』「四端論」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立於人也 頤臆臍腹 行其知也 頭肩腰臀 行其行也

1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四統」知有舒卷 舒而決 卷而覺也 行有進退 進而動 退而止也 一決一覺 一動一止 一舒一卷 一進一退 變靜動化者 謂之四象

Table 1. 四象의 本體的(存在的) 구조

		兩 儀		特 徵	
		知	行		
兩 儀	知	耳目鼻口 知(天機)	肺脾肝腎 行(人事)	天人	才能的
	行	頤臆臍腹 行其知(性)	頭肩腰臀 行其行(命)	性命	行爲的

四象의 本體의 구조로만 보았을 때 才能과 行爲는 동등한 兩儀의 개념이다. 하지만 인간의 삶의 입장에선 언제나 行爲의 조절이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기 쉽다. 즉 才能은 선천적 불변의 요소로, 行爲는 후천적 가변의 요소로 규정하는 논리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行爲의 근거가 되는 才能은 선천적 고정 불변의 요소가 아니라 후천적 擴充이 필요한 부분이다.

才能의 후천적 擴充을 四象의 本體의 구조로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本體의 구조는 인간의 存在에 관한 설명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인간의 실질적 삶에 관한 부분은 본체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運用的인 부분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才能의 요소와 行爲의(當爲의) 요소로만 四象을 분석하는 것은 四象을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天性-人命의 구조를 분석함으로 인하여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2. 天性-人命의 대칭적 구조로 분석한 四象

天에 해당하는 耳目鼻口와 性에 해당하는 頤臆臍腹의 관계와, 人에 해당하는 肺脾肝腎과 命에 해당하는 頭肩腰臀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耳目鼻口의 好善之心이 天機를 접합(察)에 있어서 性이 발현된다. 즉 客體의인 理致를 알아감에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이 性이며 이는 곧 知的 근원이 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耳目鼻口의 好善之心을 바탕으로 客體로부터 자신의 내면적 이치를 깨달을 수 있으며, 性의 慧覺으로 실제적 行함(行其知)에 이상적인 德을 실현 할 수 있다. 德의 근원은 頤臆臍腹의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이지만 頤臆臍腹의 誣世之心이 驕矜伐夸의 邪心을 유발할 수도 있는 가능성 또한 지니게 된다.

耳目鼻口와 頭肩腰臀의 관계는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耳目鼻口를 통하여 발현되는 性에서 太少陰陽人은 각각의 氣의인 특징을 가진다¹²⁾. 太少陰陽人은 자신이 잘하는

性氣의 능력에 대해 驕慢하지 말고 스스로 반성(自反)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¹³⁾. 이러한 반성하는 마음이란 곧 性氣의 발현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있어 절대적으로 취약한 頤臆臍腹의 邪心(驕矜伐夸)을 鏡戒하여 籌策, 經綸, 行檢, 度량을 얻는 것이다¹⁴⁾.

天人-性命의 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耳目鼻口를 통하여 발현되는 性(哀怒喜樂)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것으로 才能의 요소이며 선천적 체질 요소이다. 하지만 哀怒喜樂의 性 또한 未發한 상태에서 恒戒하는 후천적인 조절이 필요하니 東武는 이러한 상태를 ‘中’이라 하였다¹⁵⁾. ‘中’을 하는 구체적 방법이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며 이는 頤臆臍腹의 邪心을 조절하는 마음과 연관성을 지닌다.

이로 볼 때 耳目鼻口와 頤臆臍腹의 天性的 구조는 인간 삶의 이치를 파악함과 그러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行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생기는 邪心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反省의 의미를 지닌다.

즉 天性的 구조는 自我의 省察을 주관하는데 이는 四象구조 중 正己의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肺脾肝腎의 惡惡之心이 人事를 접합(行)에 있어서 情이 발현된다. 즉 主體의으로 人事를 영위함에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이 情이며 行의 근원이 되는 개념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肺脾肝腎의 惡惡之心을

12)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之性氣, 恒欲進而 不欲退, 少陽之性氣, 恒欲舉而不欲措, 太陰之性氣, 恒欲靜而不欲動, 少陰之性氣, 恒欲處而不欲出”라 하는데 여기서 性氣는 天機를 객관적으로 知함에 발현되는 氣의인 특징으로 각 체질별 性氣의 특징이 대조를 이루지 않고 모두 각기 다르다.

13) 『東醫壽世保元』 「擴充論」太陽之進, 量可而進也, 自反其材而不壯, 不能進也, 少陽之舉, 量可而舉也, 自反其力而不固, 不能舉也, 太陰之靜, 量可而靜也, 自反其知而不周, 不能靜也, 少陰之處, 量可而處也, 自反其謀而不弘, 不能處也

14) 『東醫壽世保元』 「擴充論」太陰之頤, 宜戒驕心, 太陰之頤, 若無驕心, 絕世之籌策, 必在此也, 少陰之臆, 宜戒矜心, 少陰之臆, 若無矜心, 絕世之經綸, 必在此也,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絕世之行檢, 必在此也, 少陽之腹, 宜戒夸心, 少陽之腹, 若無夸心, 絕世之度量, 必在此也

15) 『東醫壽世保元』 「擴充論」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喜怒哀樂未發而恒戒者, 此非漸近於中者乎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인간이 命의 資業을 실제적 行함(行其行)에 있어 이상적인 道를 유발 할 수 있다. 道의 근원은 頭肩腰臀의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이지만 頭肩腰臀의 罔民之心이 奪侈懶竊의 怠心을 유발할 수도 있는 가능성 또한 지니고 있는 것이다.

肺脾肝腎과 頤臆臍腹과의 관계 또한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肺脾肝腎을 통하여 발현되는 情에서 太少陰陽人은 각각의 氣的인 특징을 가진다¹⁶⁾. 太少陰陽人은 자신이 잘하는 情氣的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과 반대되는 남의 장점을 배울 줄 알아야 放縱, 偷逸, 偏私, 物慾의 마음이 過하지 않게 된다¹⁷⁾. 이러한 反省하는 마음이란 곧 情氣的 발현에 있어서 다른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頭肩腰臀의 怠心(奪侈懶竊)을 경계하여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을 얻는 것이다¹⁸⁾.

天人-性命의 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肺脾肝腎을 통하여 발현되는 情(哀怒喜樂)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것으로 才能的 요소이며 선천적 체질 요소이다. 하지만 哀怒喜樂의 情 또한 已發한 상태에서 自反하는 후천적인 조절이 필요하니 東武는 이러한 상태를 ‘和’라 하였다¹⁹⁾. ‘和’를 하는 구체적 방법이 사람을 알고 배우는 것이니 이는 頤臆臍腹의 邪心을 조절하는 마음과 연관성을 지닌다.

이로 볼 때 肺脾肝腎과 頭肩腰臀의 人命的 구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行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怠心을 극복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人命的 구조는 他我的 省察을 주관하는데 이는 四象구조 중 知人的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총괄하여 본다면 東武의 四象의 구조를 인간의 天性和 人命으로 나누어 볼 때 이들 각각은 正己의 요소와 知人的 요소의 兩儀의 구조를 이룬다.

正己의 요소는 耳目鼻口가 天機를 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당위적 행위 속의 邪心을 극복하는 수양의 문제이다.

知人的 요소는 肺脾肝腎이 人事를 行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위적 행위 속의 怠心을 극복하는 수양의 문제이다.

天性和 人命의 구조 또한 耳目鼻口(好善之心), 頤臆臍腹(誣世之心), 肺脾肝腎(惡惡之心), 頭肩腰臀(罔民之心)의 四象의 구성 요소를 모두 내포하고 있으나 그 나눔에 있어서 天인과 性命으로 나누는 구조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다.

天人(才能的)-性命(行爲的)의 四象構造가 인간일 수 있는 本體의 개념이라면 인간은 그러한 四象構造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인간답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곧 知人과 正己이다.

따라서 知人和 正己의 유기적 결합은 인간의 運用的 四象구조라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 16)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之情氣 恒欲爲雄而不欲爲雌 少陰之情氣 恒欲爲雌而不欲爲雄 少陽之情氣 恒欲外勝而不欲內守 太陰之情氣 恒欲內守而不欲外勝”라 하여 情氣는 人事를 主體的으로 行함에 발현되는 氣的인 특징으로 각 체질별 情氣的 특징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太陽-少陰, 太陰-少陽).
- 17)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之人 雖好爲雄 亦或宜雌 若全好爲雄則放縱之心 必過也 少陰之人 雖好爲雌 亦或宜雄 若全好爲雌則偷逸之心 必過也 少陽之人 雖好外勝 亦宜內守 若全好外勝則偏私之心 必過也 太陰之人 雖好內守 亦宜外勝 若全好內守則物欲之心 必過也
- 18)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少陰之頭 宜戒奪心 少陰之頭 若無奪心 大人之識見 必在此也 太陰之肩 宜戒侈心 太陰之肩 若無侈心 大人之威儀 必在此也 少陽之腰 宜戒懶心 少陽之腰 若無懶心 大人之材幹 必在此也 太陽之臀 宜戒竊心 太陽之臀 若無竊心 大人之方略 必在此也
- 19)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喜怒哀樂未發而恒戒者 此非漸近於中者乎

Table 2. 四象의 運用的(修養的) 구조

		兩 儀		特 徵	
		知	行		
知	耳目鼻口	頤臆臍腹	天性	正己의 요소	
	性(中)	邪心 조절			
兩 儀	↓	↑	人命	知人的 요소	
	性氣: 自我 省察	肺脾肝腎			
行	情(和)	怠行 조절	人命	知人的 요소	
↓	↑	情氣: 他人 省察			

四象의 運用的 구조로만 보았을 때 正己와 知人은 동등한 兩儀的 개념이다. 하지만 인간의 存在的 입장에선 언제나 存在를 공고히 할 수 있는 正己가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될 것이다. 즉 正己는 인간이 추구해야할 궁극적 요소로, 知인은 正己에 필요한 부수적인 요소로 규정하는 논리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知인은 正己의 부수적 요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知인 또한 올바른 正己 확립이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다.

正己의 올바른 확립은 四象의 運用的 구조로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인간의 기본적 구조에 관한 부분은 운용적 구조에 근간이 되는 본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正己의 요소와 知人的 요소로만 四象을 분석하는 것은 四象을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天人-性命의 구조를 분석함으로 인하여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3. 事物-心身, 事心-物身の 복합적 분석

『格致藁』에서 事心身物의 기본 구조는 『格致藁』 『儒略』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儒略』에선 事와 心, 物과 身의 상호작용을 湊應隨行으로 나누어 설명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湊는 事에서 心으로의 작용, 應은 心에서 事로의 작용, 隨는 物에서 身으로의 작용, 行은 身에서 物로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²⁰. 湊(事→心)에는 心四端(辨思問學)이 작용하며 應(心→事)에는 事四端(貌言視聽)이 작용하며 隨(物→身)에는 身四端(屈放收伸)이 작용하고 行(身→物)에는 物四端(志膽慮意)이 작용하게 된다. 事四端(貌言視聽)은 心이 事를 인식함의 기본 능력이며 物四端(志膽慮意)은 身이 物에 行함에 있어서의 기본 능력이다. 事四端(貌言視聽)과 物四端(志膽慮意)이 才能의 요소를 이룬다면, 心四端(學問思辨)과 身四端(屈放收伸)은 行爲의(當爲的) 요소를 이루게 된다. 즉 貌言視聽과 志膽慮意는 『東醫壽世保元』의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이 天機와 人事에서 觀하고 立할 수 있는 기본 능력으로 각각

知와 行의 개념이다. 이는 天人(事物), 性命(心身)중 天人(事物)에 속하는 기본적인 구조이다.

또한 心四端(學問思辨)은 인간이 貌言視聽의 재능으로 天機를 知함에 발현되는 肅乂哲謨를 遊廣大蕩하게 만드는 行爲이다²¹. 身四端(屈放收伸)은 人間이 志膽慮意의 재능으로 人事를 行함에 발현되는 利勇謀知를 趨助成救하게 만드는 行爲이다²².

心四端과 身四端은 性命(心身)에 속하는 기본적인 구조이다. 또한 天性(事心)과 人命(物身)의 으로 나눈다면 事四端(貌言視聽)과 心四端(學問思辨)의 正己의 요소와 物四端(志膽慮意)과 身四端(屈放收伸)의 知人的 요소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貌言視聽이 天機를 접하여 知를 함에 그 반대의 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인간 사회의 필연적 문제가 貧賤困窮이다. 이러한 貧賤困窮은 내가 쉽게 조절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밖에 있는 外物이며 이로 인하여 인간은 邪心이 생기게 마련이다. 貧賤困窮을 극복할 방법은 올바른(義) 誠慧勤能을 行하는 것²³이며 이러한 誠慧勤能은 學問思辨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²⁴. 즉 貌言視聽의 재능으로 心이 事에 應하여 자기 내면의 道心과 人心을 파악하고, 貧賤困窮의 문제는 學問思辨으로 극복하는 正己의 구조이다.

志膽慮意가 人事를 접하여 行을 함에 그 반대의 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인간 사회의 필연적 문제가 富貴顯達이다. 이러한 富貴顯達 또한 내가 쉽게 조절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밖에

21) 『格致藁』 『儒略(4.天下)』 辨所以明也 肅極邈也 思所以慎也 艾極廣也 問所以審也 哲極大也 學所以博也 謀極蕩也

22) 『格致藁』 『儒略(4.天下)』 屈所以積也 利相趨也 放所以廓也 勇相助也 收所以弘也 謀相成也 伸所以豁也 知相救也

23) 『格致藁』 『儒略(4.天下)』 貧之義勤也 故所居 不患貧也 賤之義能也 故所群 不患賤也 困之義慧也 故所合 不患困也 窮之義誠也 故所周 不患窮也

24) 『格致藁』 『儒略(1.事物)』 以其治國平天下之誠 爲學所得之也 故其私已得之齋 莫之蔽也 以其修身齊家之勤 爲辨所得之也 故其欲人有之詐 莫之礙也 以其格物致知之慧 爲問所得之也 故其放縱好之侈 莫之陷也 以其誠意正心之能 爲思所得之也 故其安逸頹之懶 莫之迷也

20) 『格致藁』 『儒略(1.事物)』 心應事也 博而周也 事湊心也 察而恭也 身行物也 立而敬也 物隨身也 載而效也

Table 3. 『格致彙』『儒略』에서의 事物-心身, 事心-物身の 복합적 구조

湊 ↓ 心 四 端 의 발 현	事 (萬大)		↑ 應 事 四 端 의 발 현	事四端 (人皆有)	機能	對象	事四端이 指向하는 屬性	作用	結果	心	天 ▼ 才 能	天 性 ▼ 正 己
	萬	一		貌言 視聽	心이 事에 應할수 있는 선천적 才能	對衆 (欲)	敬忠誠信 「仁義禮智」	→	肅又哲謨	道心		
散 智 私	決 誠 嗇			守己 (不欲)	狂僭豫急	→	恭從明聰	人心				
↑ 隨 身 四 端 의 발 현	心 (一小)		行 ↓ 物 四 端 의 발 현	心四端	機能	天機특성 (天下極)	萬(大同)	克服心	作用	外物	性 命 ▼ 行 爲	人 命 ▼ 知 人
	萬	一		辨思 問學	事が 心에 湊함에 생기는 貧賤困窮을 극복할 후천적 행위	遊廣大蕩 (肅又哲謨)	居群合(聚)散(周)	勤能慧誠	義 ← 不患 →	貧賤困窮		
聚 禮 私	覺 慧 侈			身 (一小)	機能	人事특성 (天下相)	一(各立)	克服心	作用	外物		
萬	一	屈放 收伸	物이 身에 隨함에 생기는 富貴顯達을 극복할 후천적 행위	趨助成救 (利勇謀知)	止動(行)遇(覺)決	仁義禮智	道 ← 不恃 →	富貴顯達				
群 義 逸	行 能 懶			物 (萬大)	機能	對象	物事端이 指向하는 屬性	作用	結果	理致		
萬	一	志膽 慮意	身이 物에 行할수 있는 선천적 才能	天心 (欲)	濟整和周 「勤能慧誠」	→	惻羞辭是	天理				
居 仁 慈	止 勤 詐			人心 (不欲)	奪欺妬竊	→	隱惡讓非	人欲				

있는 外物²⁵⁾이며 이로 인하여 인간은 怠心이 생기게 마련이다. 富貴顯達을 극복할 방법은 도리에 맞는(道) 仁義禮智의 마음을 가지는 것²⁶⁾으로 이러한 仁義禮智의 마음은 屈放收伸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志膽慮意의 재능으로

身이 物에 行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天理와 人欲을 파악하고, 富貴顯達의 문제는 屈放收伸으로 극복하는 知人的 구조이다.

세상살이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貧賤困窮, 富貴顯達을 억지로 피하고자 하거나 얻으려 할 때 邪心과 怠心이 생긴다. 하지만 外物的 세상살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外物的 세상살이 때문에 생기는 邪心(放心)과 怠心(逸心)을 誠慧勤能의 마음과 仁義禮智의 마음으로 조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총괄하면 Table 3과 같다.

『格致彙』『儒略』에서 보이는 事心身物의 四

25) 東武는 『格致彙』『反誠箴(8.坎箴)』에서 “貧富外物也 住着存中也 貴賤外物也 廉隅存中也 顯困外物也 敦敬存中也 窮達外物也 計劃存中也”라 하여 貧賤困窮과 富貴顯達은 나의 밖에 있는 물건이고 住着, 廉隅, 敦敬, 計劃은 내 안에 보존된 것으로 보는데 住着, 廉隅, 敦敬, 計劃은 내 안에서 나오는 修養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6) 『格致彙』『儒略(4.天下)』富之道仁也 故所止不持富也 貴之道義也 故所動不持貴也 顯之道禮也 故所遇不持顯也 達之道智也 故所決不持達也

Table 4. 天人(事物)-性命(心身), 天性(事心)-人命(物身)의 복합적 구조

		兩儀				
		性(知)	情(行)			
兩儀	心(知)	耳目鼻口(性) 知(天機) 好喜之心	肺脾肝腎(情) 行(人事) 惡惡之心	天人的 (事物)	才能的 요소	本體的 구조
	身(行)	額臆臍腹(邪心) 行其知(性) 護世之心	頭肩腰臀(怠行) 行其行(命) 罔民之心	性命的 (心身)	行爲的 요소	
		德(知)	道(行)			
		天性(事心)的	人命的(物身)的			
		正己의 요소	知人的 요소			
		運用的 구조				

* 本體的 구조와 運用的 구조는 필연적으로 서로를 擴充하면서 四象構造를 이룬다.

象구조 또한 才能的 요소와 行爲的(當爲的)요소, 正己的 요소와 知人的 요소로 나눌 수가 있으며, 天人性命은 事物心身과 일치하는 구조로 파악되며, 이는 『東武遺業』 「勝胱」에서의 배속과 일치 한다²⁷⁾.

Ⅲ. 考 察

東武의 天人性命(事物心身)은 天人(事物)과 性命(心身)으로 나눈 才能的 요소와 行爲的 요소가 한 축을 이룬다면, 天性(事心)과 人命(物身)으로 나눈 正己的 요소와 知人的 요소가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된다.

四象의 구조에 있어서 天人-性命과 天性-人命의 큰 틀을 각각 나누어 兩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편적 兩儀의 개념이 모든 四象의 이치를 포괄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각 구조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파악함이 四象을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東武에 있어서 天性-人命의 구조와 天人-性命的 구조는 각각 四象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지만, 그 네 가지의 요소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연계시키며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두 중

류의 축으로 분석할 수 있다.

才能的 요소와 行爲的 요소가 인간을 파악함에 기본이 되는 本體的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本體에 따라오는 運用的 구조는 正己的 요소와 知人的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일 수 있는 四象의 기본 틀은 本體的 구조에서 정해지지만, 인간다울 수 있는 삶은 運用的 구조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東武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四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性命, 知人, 心身, 性情, 道德 등의 兩儀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를 다시 才能的, 行爲的인 부분과 知人的, 正己的 부분으로 나누어 총괄적으로 兩儀의 개념을 파악한 후 두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총괄하면 Table 4와 같다.

Ⅳ. 結 論

天人性命과 事心身物의 四象構造를 東武의 人間論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天人-性命으로 대칭되는 구조는 ‘才能的-行爲的’ 요소로 분석이 가능하며, 天性-人命으로 대칭되는 구조는 ‘正己的-知人的’ 요소로 분석이 가능하다.

27) 『東武遺業』 「勝胱」 事即天也 物即人也 身即命也 心即性也

2. 天人-性命의 구조는 四象의 本體의 구조라 할 수 있으며, 天性-人命의 구조는 四象의 運用的 구조라 할 수 있다.

3. 本體의 구조가 인간일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이루는 體의 개념이라면, 運用的 구조는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用의 개념이다.

4. 東武의 四象構造를 이해하기 위해선 天人-性命의 本體의 구조와, 天性-人命의 運用的 구조를 대칭적, 유기적으로 해석하여야만 한다.

5.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의 四象構造와 『格致藁』 「儒略」의 事心身物의 四象構造는 天-事, 人-物, 性-心, 命-身으로 배속되며 이는 『東武遺藁』 「膀胱」의 배속과 일치한다.

V. 參考文獻

1. 李濟馬著, 사상의학회간행. 東醫壽世保元. 대성문화사, 서울, 1998.
2. 李濟馬著, 박성식역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집문당, 서울, 2003.
3. 李濟馬著, 지규용역해. 東武格致藁譯解. 영림사, 서울, 2001.
4. 李濟馬著, 백대식역주. 格致藁 清溪. 경기, 2002.
5. 李濟馬著, 이창일역주. 東武遺藁. 清溪. 경기, 1999.
6. 이을호. 李東武 四象說 論攷. 한국사상논문선집. 2001:404-407.
7. 송일병. 李濟馬의 儒學의 人間觀과 醫學精神.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1):1-9.
8. 송일병. 東武公의 形象觀과 四象醫學의 形象醫學精神.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7-9.
9. 송일병. Human genome 시대에 부응하는 四象體質醫學의 역할과 치료정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2):1-8.
10. 박은경. 東武 李濟馬의 人間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3:46-55.
11. 이의주, 송일병. 李濟馬의 四象哲學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15-12.
12. 김정호, 송정모. 四象醫學 形象觀에 대한 事心身物의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 295-310.